

108산사순례기도 6년 한국불교 신행문화 새 이정표 세워

10월 31일 농촌사랑 나눔 한마당...서울 시청앞 광장

연 동참인원 35만명, 전세버스 7000여 대, 쌀공양 2500가마, 초코파이 보시 300만 개...등.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이정표가 새로이 쓰여졌다. '선목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이하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지난 6년간 기록들이다.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목해자, 도선사 주지)는 10월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농촌사랑 나눔 봉사 한마당'을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

올해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입추의 여지없이 1만여 인파로 가득 찼다. 법회 시작전에는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이 돼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 영상과 목탁소리에 맞춰 108배를 올렸다.

법회는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차기 의장)의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법어 대독부터 시작됐다. 밀운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때로는 선재동자의 구범만행과 다름이 아니어서, 모든 동참 불자들이 하여금 깊은 신심을 돈발하게 한다"며 "이르는 곳마다 환희의 정토세계가 이뤄졌어요, 때로는 국경을 넘어 널리 불법을 선양하니 우담바라꽃 만발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불교 신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킬을 넘어 이웃종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 사상을 가장 잘 실천하는 단체임이 증명돼 많은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에 앞서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 도선사 주지 선목 해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원력으로 출발한 순례단이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6년이 됐다"면서 "지나온 6년은 참으로 보람있고 가슴 벅찬 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선목 해자 스님은 이석화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연 동참인원 35만명...

초코파이 300만개 보시

72곳 전국 사찰 누비며

쌀 공양 2500가마

네팔에 부처님 탄생불 조성

이어 선목 해자 스님은 최지훈(효문고 2년), 이현지(성동굴로별경영고2년), 권정현(인수중 1년), 김술(영신여고 2년), 박혜원(청원여고 1년), 박민건(신상계초등 3년), 김한솔(신상계초등 6년) 등 7명에게 선목 108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선목108포교상은 성효모 보살이 받았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위원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위원장 현응스님 등 조계종 원로 및 중진 스님들을 비롯해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재)청담장학재단 이사장 동광 스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김정숙 여사, 국회정각회 감사 주호영 의원, 민

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민주통합당 배재정, 임수경 의원, 안철수 대통령후보 정연순 대변인, BBS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지난 6년 동안 순례 여정을 펼쳐오면서 진기록도 펼쳤다. 지난 2006년 영축산 통도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정도 운문사 순례까지 매월 빠짐없이 전국을 누빈 사실이 모두 72곳이다.

특히 순례단은 농촌사랑봉사를 발족,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열어 도시와 농촌 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방문 지역의 군 장병들에게 간식거리 초코파이도 전달했다. 현재까지 군 장병에게 보시한 초코파이가 300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8장학금, 108효행상, 108약사여래보시상의료비 지원, 환경사랑 실천 운동, 북한동포돕기 공양미 300석 모으기 운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팔과 캄보디아 등 해외성지도 순례회 보시행은 펼치기도 했다. 특히 올 2월 15일에는 부처님탄생지인 네팔 툼비니 동산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부처님 진신사리 탄생불'을 조성했다.

다문화가정 108인연 맺기를 통해 멘토가 된 양어머니와 딸은 서로 전하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더불어 한국에 시집은 외국인 여성들의 고향보내기에도 힘쓰고 있다.

순례초기부터 빠짐없이 동참했다는 박여래님 보살(68)은 "딸과 며느리와 함께 순례에 동참하면서 부모자식간의 정도 더 돈독해 졌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국 사찰을 순례회와 함께 돌며 발원을 세울 것"이라고 환희심을 표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108산사순례기도회는 10월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6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중 모습을 드러낸 '일심광명'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농촌사랑' 피켓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법회가 시작되자 회주 선목 해자 스님과 1만여 회원들이 108참회문을 봉독하고 있다.



6년간 군장병들에게 3백만개를 보시한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과 선목 해자 스님이 3백만개 돌파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기록으로 본 108산사순례기도회의 6년

- 다문화가정 108인연맺기=139쌍
- 국군장병 초코파이 보시=300만개 (약 10억원상당)
- 6년간 타고간 버스=7,776대
- 6년간 순례거리=566만4,192km (서울과 부산을 6,294번 왕복한 거리이며 지구 둘레 141바퀴 돈 거리)
- 순례회원 기와불사=17만5천장
- 공양미 보시=쌀 2,800가마
- 효자효부상사자=123명
- 108선목장학금 시상=123명
- 108약사여래보시금시상=25명
- 기념식수=백일홍 식수 31그루
- 지난 1년동안 일심광명 10회 나눔
-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일수=총 221일
- 순례회원 구입농산물=21억원 상당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해자 스님 인터뷰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一心光明”



“이 순례도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다짐했던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을 바르게 실천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일정도 무난할 것입니다. 이 정신은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타인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펼쳐온 실천행을 바탕으로 정진해 사회의 화합, 경제적 안정 등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6년간 108산사순례회를 이끌어 온 선목 해자 스님은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108산사순례회가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지만 가장 높은 공적으로 지역

사찰에서는 농촌살리기 운동을 꼽는다. 이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해자 스님은 “돌이켜 보면 은사이신 청담 스님은 한국 불교의 앞날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늘상 '베를머 수행하다.'는 말을 강조하셨지요. 스님 말씀대로 절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와 많은 중생들을 만나고 살기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자는 것이지요.”

해자 스님은 마지막으로 “여러 마음이 함께 기도하며 얻은 하나의 마음이 밝은 마음이고, 그것이 곧 불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일심광명불(一心光明佛)'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제 11회 청담사상 학술세미나

일시 : 2012년 11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특집논문 (주제: 청담조사의 지계사상)

- 청담조사의 계율관 : 김선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삼학의 세계로 본 청담조사의 지계사상 : 최성열(조선대학교 교수)
-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에서 본 청담조사의 지계사상 : 박병기(한국고원대학교 교수)
- 청담의 지계정신과 불교정화 : 김광식(동국대학교 연구교수)

기고논문

- 청담스님의 대중화 운동과 생활윤리의 조명 : 김완정(선오스님 :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 석전대종사와 청담조사의 계율인식에 관한 연구 : 김현남(원광대학교 외래교수)

주최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청담사상연구소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학교,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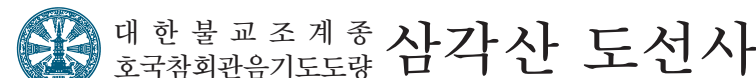


청담조사 열반 제 41주기 추도 대법회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시며 도선사의 중창조이신 청담조사 열반 제41주기 추도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조계종단을 청정비구승단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데 앞장서셨던 청담조사님의 업적과 사상을 되새기고 종단의 안정과 불법이 날마다 증장되기를 발원하는 이번 제41주기 추도 대법회에 종단의 고승대덕 및 불자님들께서 무무 동참하시기를 앙망하옵니다.

門長 진불장 혜성 祖室 경하 현성 住持 선목 해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전화 : (02)993-3161~3 www.dosunsa.or.kr

주최 : 청담문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후원 :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산하 청담중·고등학교, 복지법인 혜명복지원·청담복지관·혜명양로원·혜명보육원